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igration Factors of Working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Jeju Island

김봉균**·홍근석***·이지용****

Kim, Bong-kyun·Hong, Geun-Seok·Lee, Ji-Yong

■ 목 차 ■

- I. 서론
- II. 제주도의 인구 현황 및 선행연구
- III. 데이터 및 분석모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이주 및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 및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유무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 본 연구는 홍근석·김봉균(2020)의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 제1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20. 09. 28, 심사기간: 2020. 09. 28 ~ 2020. 11. 13, 게재확정일: 2020. 11. 13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주제어: 이주의향 요인, 제주거주경험, 정착비용, 관계·교류인구 확대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pulation who are willing to move to Jeju island in the metropolitan area. We use an web survey to identify whether working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has an intention to migrate to Jeju island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We then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 on the migration to Jeju islan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show that people who has previous residence experience and people who has any acquaintances in Jeju island are more likely to migrate to Jeju islan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osts of acquiring information about migration and having social relationship could be the main factors of the migration of working population to Jeju island.

□ Keywords: Migration, Residence Experience, Adjustment Costs, Exchange Population

I. 서론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인구문제 중 하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51,849,861명으로, 이 중 약 50%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¹⁾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환경문제, 지역 간 격차심화,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하혜수·남창우, 2002).

이러한 문제점 하에,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등 인구분산을 위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인이 지역 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출산·육아·보육·주거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여 복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성공적인 정책을 제외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유입정책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국내외 타 단체의 성공적인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순 열거식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중복되는 인구유입정책이 다수 존재하며, 각 정책이 지역 내 인구유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효하게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유입정책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립 시 이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 인구(25~49세)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이주할 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인구(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5년을 정점으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25~49세의 인구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들 연령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소비와 생산 활동에 있어 중

1) 이 세 지역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약 11.8%로 서울특별시에 9,729,107명, 인천광역시에 2,957,026명, 경기도에 13,239,666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역 내 경제활동이 위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핵심생산연령에 속하는 인구유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전입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25.1%와 26.5%로 전입자의 절반 이상이 이 두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태호,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²⁾

제주도로의 이주의향 여부와 연령, 성별, 소득, 직업 등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어떠한 요인들이 이주의향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도 거주경험 유무와 제주도 거주 친인척 유무가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하여 제주도로 이주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소득, 직업, 그리고 이사 횟수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계수 값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제주도 거주경험 유무와 제주도 거주 친인척 유무가 제주도로의 이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제주도로의 이주준비 여부로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도, 이주의향 여부 분석과 유사하게 제주도 거주경험 및 제주도 거주 친인척 유무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높은 이주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제주도를 경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의 이주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인접도시 택지개발지의 가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장욱·김경수(2001)의 연구, 성남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삶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임정빈·최재녕·홍근석(2012)의 연구, 대전시민의 세종시에 대한 이주의향 및 이주요인을 분석한 임병호·금기반·이시영(2012)의 연구,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농촌 청년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최정신·황정임·최윤지·한송희(2018)의 연구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지역 혹은 권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의 이주의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³⁾ 제주도의 경

2) 인천시로부터의 전입자 비중은 5.9%로 나타났다.

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지역(섬지역)이라는 점,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는 점, 독특한 지역문화와 자연환경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타 지역의 사례를 제주도 상황에 일반화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이주지역에서의 거주경험과 친인척 유무에 대한 정보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이들 변수가 어떠한 이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에 대하여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II. 제주도의 인구 현황 및 선행연구

1. 제주도의 인구현황과 지역경제

제주도의 총인구는 내국인 기준 2009년 562,663명에서 2018년 667,191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인 1.76%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0.4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구증가율은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핵심생산연령인구의 경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0.7%만 증가하였다. 2014년과 2018년의 연령대별 인구를 비교하면 핵심생산인구와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같은 기간 0.63%p 증가하였으나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중은 0.93%p 감소하여 생산연령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성용·하창연(2014)은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0~2012년 사이의 제주지역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 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는데,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우 직업, 주택, 가족요인에 따른 순전입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이주에 있어서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표 1〉 제주도의 연령별 인구 현황

연도	총인구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핵심생산연령인구 (25~49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2009	562,663	0.4	106,283	-3.2	389,674	0.8	224,374	-1.0	66,706	3.9
2010	571,255	1.5	103,551	-2.6	398,063	2.2	224,184	-0.1	69,641	4.4
2011	576,156	0.9	101,220	-2.3	402,356	1.1	221,639	-1.1	72,580	4.2
2012	583,713	1.3	99,758	-1.4	408,030	1.4	220,655	-0.4	75,925	4.6
2013	593,806	1.7	98,936	-0.8	415,565	1.8	220,931	0.1	79,305	4.5
2014	607,346	2.3	98,461	-0.5	426,474	2.6	223,704	1.3	82,411	3.9
2015	624,395	2.8	97,811	-0.7	440,691	3.3	227,877	1.9	85,893	4.2
2016	641,597	2.8	98,117	0.3	454,291	3.1	232,769	2.1	89,189	3.8
2017	657,083	2.4	98,727	0.6	465,239	2.4	237,806	2.2	93,117	4.4
2018	667,191	1.5	98,261	-0.5	472,723	1.6	239,519	0.7	96,207	3.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Lee and Sugiura(2018)는 이와 같은 지역 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시기 t 에서의 지역 내총생산을 $Y(t)$, 노동생산성을, $\alpha(t)$, 노동시간을 $H(t)$, 그리고 근로자수를 $E(t)$ 로 나타낼 경우, 지역총생산은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⁴⁾

$$Y(t) = \alpha(t) \times H(t) \times E(t) \quad (1)$$

다음으로 N 이 15세 이상 인구수를 나타내고 L 은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낸다고 정의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beta=L/N$)과 고용률($e=E/L$)을 각각 도출할 수 있다. $\beta N=L$ 과 $E=eL$ 을 식 (1)에 대입하면 지역총생산은

$$Y(t) = \alpha(t) \times H(t) \times \beta(t) \times e(t) \times N(t) \qua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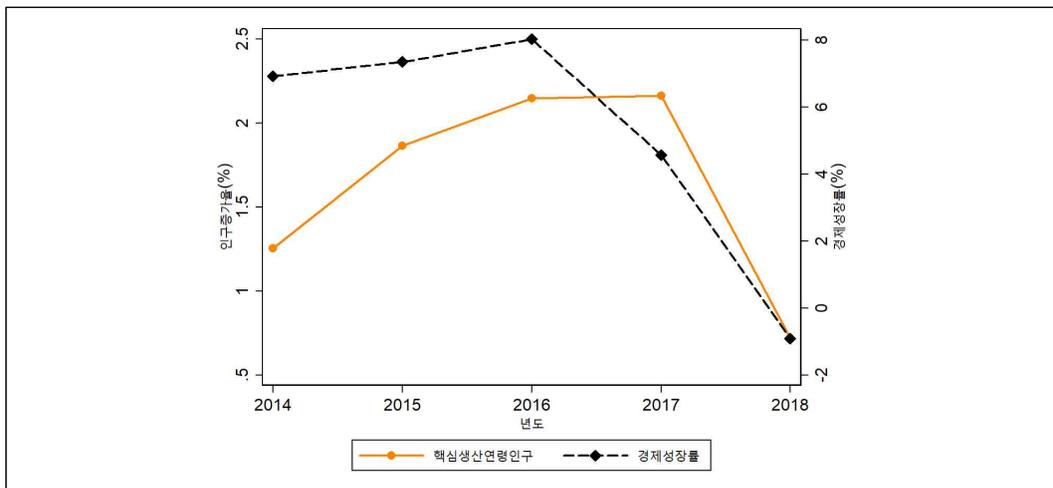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식 (2)의 양변에 로그를 취한 후 t 로 미분하면 식 (3)과 같이 지역총생산 성장률은 각 변수의 성장률에 대한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⁴⁾ 기술수준, 산업구조 등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인구이주, 즉 노동의 총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단순한 성장모형을 통해 인구이주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자 한다.

$$\frac{\dot{Y}}{Y} = \frac{\dot{\alpha}}{\alpha} + \frac{\dot{H}}{H} + \frac{\dot{\beta}}{\beta} + \frac{\dot{e}}{e} + \frac{\dot{N}}{N} \quad (3)$$

즉, 지역총생산은 노동생산성(α), 근로시간(H), 경제활동참가율(β), 고용률(e),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수(N)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지역 내 인구유출,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은 해당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야기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감소시킨다. 인구의 고령화는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만약 노동생산성이 인구유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수준까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할 경우, 지역총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그림 1>은 2014~2018년 제주도의 핵심생산연령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식 (3)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두 변수 사이에 대체로 양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ee and Sugiura(2018)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교외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세한 산업구조와 낮은 고학력자 비율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지적한 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인구를 교외지역으로 재배치(rearrangement)시킴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2차 산업이 주로 발달되어 있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제주도 또한 지역 내 인구증가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촉진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제주도 핵심생산연령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이상의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Lee and Sugiura(2018)의 이론적 논의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핵심생산연령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이들 지역경제발전 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 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에 대하여 먼저 파악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구이주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최근의 인구이주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유출-유입’ 모형(push-pull model)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⁵⁾ 이모형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유출요인과 유입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주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유출요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만드는 현재 거주지의 특성들이고, 반대로 유입요인은 새로운 거주지의 특성들로, 개인이 그 지역을 이주 지역으로 선택하게끔 만든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17)의 경우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크게 경제적 이유, 정치사회적 이유, 그리고 생태학적 이유로 구분한 후, 각 이유에 대한 유출 및 유입 요인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이유에서의 유출 요인은 실업과 일자리 부족 그리고 빈곤을 포함하고 유입요인은 일자리 기회와 더 높은 소득 및 수입 전망, 그리고 전문적 교육훈련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다. ‘유출-유입’ 모형은 유출요인 및 유입요인이 현재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사이의 거리, 물리적 장벽, 이주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하는 개입 장애물(intervening obstacles)과 나이, 성별, 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personal factors)들이 함께 연계하여 개인의 최종적인 이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구의 이주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이주결정요인으로 포함시켜야 할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한다.⁶⁾

5) 인구이주와 관련된 다른 이론적 관점은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신고전학파적(The neo-classical) 이론과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역사-구조적(Historical-structural) 이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 이론들의 특성 및 한계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e Haas H(2010)를 참조하라.

6) 본 연구에서 언급된 논문 이외에 국내사례를 대상으로 인구이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부산시 내부인구이동에 대하여 연구한 김경수·장욱(2001), 지역 간 인구이동을 목적지와 기원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최은영(2004), 경상남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하상근(2005), 경기도 내 신도시로의 인구유입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이희희(2007),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을 대상으

임정빈·최재녕·홍근석(2012)은 기존의 연구들이 인구이동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요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온 반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사실을 지적하며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활용하여 삶의 질이 지역주민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을 경제적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그리고 사회문화적 삶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성남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성남시를 떠나려는 이주의사를 가진 주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삶(소득, 지역경제), 편리한 삶(주차, 교육), 쾌적한 삶(수질환경, 소음)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호·금기반·이시영(2012)은 대전시민의 세종시에 대한 이주의향 및 이주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도시 관심도, 주거여건, 그리고 개인속성으로 나누었는데 도시 관심도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전시와 이주대상인 세종시에 대한 관심도 및 호감도 등이 포함되었고, 주거여건에는 주택유형, 주택소유 형태,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포함되었으며, 개인속성에는 연령,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학력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이주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세종시에 대한 호감도, 체육시설에 대한 주거만족도,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응답자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송두범·임준홍·홍성호(2015)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현재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력과 소득으로 구분되는 개인의 계층을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분한 후 이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주의향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사회 안전 및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이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관련하여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들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최정신·황정임·최윤지·한송희(2018)은 19~39세의 전국 농촌 청년을 대상으로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요인들을 크게 개인적 특성,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 마을 인식 및 태도 요인, 그리고 공동체 의식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특히, 마을 인식 및 태도는 지역개발태도와 마을 안전 인식으로 측정하였고, 공동체의식은 귀속성, 교류성, 그리고 애착성으로 측정하였다. 농업인복지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여가 만족도가 높을수록, 마을 안전 의식이

로 이주결정요인을 분석한 임동일(2011), 혁신도시 이전기관 특성과 기관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문형주·송재민(2019) 등이 존재한다.

높을수록, 그리고 애착성이 높은 청년들일수록 이주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신동호(2018) 역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이들의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농업인복지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 기초생활, 경제활동, 교육여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가족생활, 지역사회, 문화여가, 환경경관, 그리고 안전의 총 11개 영역으로 생활만족도를 분류하여 각 영역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안전부문 및 기초생활 부문에서의 만족도가 부정적일수록 응답자가 이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저자	분석기법	변수	주요 결과
임정빈 최재녕 홍근석 (2012)	중요도-성과분석 (IPA)	소득, 지역경제, 기초생활보장, 의료기관, 보건소, 방재, 방범, 주거, 교통, 주차, 교육, 행정서비스, 공공시설, 대기, 수질, 소음, 공원, 도시경관	성남시를 떠나려는 이주의사를 가진 주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
임병호 금기반 이시영 (201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도시 관심도 주거여건 개인 속성	이주 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세종시에 대한 호감도, 체육시설에 대한 주거만족도, 거주지부터의 거리, 응답자의 학력으로 파악
송두범 임준홍 홍성효 (201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주의향 여부,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환경 만족도, 학력, 가구소득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사회안전 및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이주의향이 높을 것으로 파악
최정신 황정임 최윤지 한송희 (2018)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주택소유형태, 주택종류, 거주기간, 거주지역, 지역생활 만족도, 마을인식 및 태도, 공동체 의식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여가 만족도가 높을수록, 마을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애착성이 높은 청년들일수록 이주의사가 낮은 것으로 분석
김정태 신동호 (2018)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초생활, 경제활동, 교육여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가족생활, 지역사회,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안전부문, 기초생활부문에서 만족도가 부정적일수록 응답자 이주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이주결정요인으로 학력, 소득, 직업 등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 뿐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 주거, 안전 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주요 이주결정요인으로 포함시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거주, 교육, 출산·보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교통·편의시설, 그리고 일자리·경제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값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III. 데이터 및 분석모형

1. 데이터

제주이주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5세 이상 만 50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⁸⁾ 설문조사의 표본은 2020년 3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에 맞춰 추출하였는데, 총 32,993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중 2,660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8.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설문참여자에 대한 검증 결과 648명의 응답이 설문분석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문분석에 사용한 응답자 수는 2,012명으로 최종 성공률은 6.1%로 나타났다.

〈표 3〉은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변수들과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 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이주의향과 이주준비에 대한 의사수준으로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중, 긍정적인 답변 2개와 부정적인 답변 2개를 합하여 각 변수에 대한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이주의향의 경우 응답자들 중 절반 이상인 51.5%가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48.5%는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5.3%는 이주 의향이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6.2%는 이주 의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9%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은

7) 인구이동과 관련한 국외 연구들의 경우, 지역 간의 임금 또는 소득수준의 차이(Todaro, 1976; Lee and Phillips, 1997; Borjas, 2014), 교육시스템(Dustmann and Glitz, 2011), 편의성과 쾌적성 수준(Graves & Linneman, 1979; Banzhaf and Walsh, 2008; Kim 2019), 테러 및 사회적 갈등(Dreher et al., 2011; von Borstel et al., 2017) 등 여러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8)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큰 차이가 없으며 거주 지역은 경기도, 고양은 광역시, 혼인상태는 결혼, 미혼 혹은 비혼을 포함한 결혼 외의 상태, 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상, 직업은 사무직 및 전문직 외의 직업, 월 가구 소득은 300~599만원, 그리고 이사 횟수는 3회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이주의향 있음	0.515	0.500	0	1	
	이주의향이 아주 많음	0.053	0.223	0	1	
	이주의향이 약간 있음	0.462	0.499	0	1	
	이주의향이 별로 없음	0.317	0.465	0	1	
	이주의향이 전혀 없음	0.168	0.374	0	1	
	이주준비 하고 있음	0.121	0.326	0	1	
	구체적으로 준비	0.009	0.095	0	1	
	어느 정도 준비	0.112	0.316	0	1	
	별로 준비 안함	0.573	0.495	0	1	
	전혀 준비 안함	0.306	0.461	0	1	
개인적 특성	성별	남성	0.502	0.500	0	1
		여성	0.498	0.500	0	1
	연령	20대	0.197	0.398	0	1
		30대	0.384	0.486	0	1
		40대	0.149	0.494	0	1
	거주 지역	서울시	0.455	0.498	0	1
		경기도	0.545	0.498	0	1
	고향	수도권	0.230	0.421	0	1
		광역시	0.655	0.476	0	1
		그 외	0.116	0.320	0	1
	혼인상태	결혼	0.454	0.498	0	1
		그 외	0.546	0.49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135	0.341	0	1
		대학교 재학 이상	0.865	0.341	0	1
	직업	사무직 및 전문직	0.403	0.491	0	1
		그 외	0.597	0.491	0	1
월 가구 소득	100~299만원	0.191	0.393	0	1	
	300~599만원	0.515	0.500	0	1	
	600~899만원	0.214	0.410	0	1	
	900~1000만원 이상	0.081	0.272	0	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이사 횟수 거주경험 및 친인척	0회	0.151	0.358	0	1
	1회	0.164	0.370	0	1
	2회	0.216	0.411	0	1
	3회 이상	0.470	0.499	0	1
	제주거주경험 있음	0.077	0.267	0	1
	제주 거주 친인척 있음	0.148	0.355	0	1
현재 거주 지역 만족도	거주	5.256	1.100	1	7
	교육	4.822	1.172	1	7
	출산보육	4.659	1.129	1	7
	보건의료	5.070	1.174	1	7
	문화여가	4.830	1.339	1	7
	교통편의시설	5.203	1.364	1	7
	일자리경제	4.550	1.293	1	7
관측치 수(N)	2,012				

주: 이주의향 있음은 이주의향이 아주 많음과 이주의향이 약간 있음을 포함하고, 이주준비 하고 있음은 구체적으로 준비와 어느 정도 준비를 포함함. 현재 거주 지역 만족도의 경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보통이다, 5-그런 편이다, 6-그렇다, 7-매우 그렇다 임. 그 외 혼인상태에 해당하는 항목은 미혼/비혼, 이혼, 사별, 기타임. 그 외 직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직, 판매 및 영업직, 주무, 무직 및 학생, 기타임.

또한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7%가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4.8%로 나타났는데, 이 두 변수의 경우 이주 전, 제주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사전적인 정보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을수록, 제주도에 대한 정보가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만족도는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영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거주환경으로 5.256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4.550의 일자리 및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교통·편의시설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출산·보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모형

〈표 3〉에 나타난 변수들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의 제주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식(4)를 추정하였다.

$$Y_i = \alpha + \sum_n B_n P_i + \sum_n \gamma_n S_i + \epsilon_i \quad (4)$$

종속변수인 Y_i 는 응답자 i 의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변수로, Y_i 가 더미변수인 경우(예를 들어, 이주의향 있음, 이주의향 없음), 이항 로지스틱(binary logistic)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Y_i 가 4점 척도로 측정된 의사수준일 경우(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준비, 어느 정도 준비, 별로 준비 안함, 전혀 준비 안함), 순서 로지스틱(ordered logistic)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_i 는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고향, 혼인상태, 학력, 직업, 월 가구 소득, 이사 횟수, 제주거주경험 여부, 그리고 제주 거주 친인척 여부를 포함한다. S_i 는 현재 거주하고 지역의 거주, 교육, 출산·보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교통·편의시설, 일자리·경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ϵ_i 는 모형의 오차항으로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IV. 분석결과

〈표 4〉는 제주이주에 대한 의향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로지스틱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열 (1)-(2)은 종속변수가 더미변수로(0-이주의향 없음, 1-이주의향 있음)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열 (4)은 종속변수가 4점 척도로 측정된 의사수준으로(1-이주의향이 매우 높음, 2-이주의향이 약간 있음, 3-이주의향이 별로 없음, 4-이주의향이 전혀 없음) 순서 로지스틱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열에서 계수 값은 승산비(odds ratio)를 나타내고 있어, 1보다 클 경우, 준거집단(reference group)에 비해 해당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종속변수의 값을 취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에 있어 개인적 특성만을 통제한 열 (1)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성별, 월 가구소득, 직업, 이사 횟수, 그리고 거주경험 및 친인척 유무가 유의한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응답자

는 남성응답자에 비해서 제주도로 이주할 확률이 약 2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무직 및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판매 및 영업직등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보다 제주도로의 이주의향이 약 24%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경험 및 친인척의 경우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큰 계수 값과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제주도로의 이주의향에 대하여 약 2배 이상 긍정적인 반응을 할 확률을 보였다.

열 (2)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만을 통제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모든 분야들 중,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만족도만이 이주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거주지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제주이주의향이 약 11%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함께 현재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통제한 결과가 열 (3)에 나타나 있다. 만족도의 경우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유의성도 사라진 반면, 제주거주경험 및 친인척 유무를 포함한 열 (1)에서 유의한 값을 보인 다른 개인적 특성들은 열 (3)에서도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순서 로지스틱 분석결과가 나타난 열 (4)의 경우 계수 값은 선택범주 1에 비해 2를 혹은 선택범주 2에 비해 3등 한 단위 위의 범주를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승산비로, 본 연구의 경우 1이 이주의향이 매우 높음이고 4가 이주의향이 전혀 없음이기 때문에 계수 값이 1보다 클수록 이주의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 열 (4)에서는 연령이 추가적으로 유의한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20대 응답자들에 비해서 40대 응답자들이 제주이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열 (3)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 4>에 나타난 추정결과는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개인적 특성이 제주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히로사키 지역을 대상으로 고향에 부모의 집이 있는지의 여부가 귀향의 가장 큰 결정요인임을 보인 Lee and Sugiura(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을 경우 거주지에 대한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작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주의향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비례확률가정(proportional odds assumption)에 대한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결과 p-value는 0.3682로 나타났다.

〈표 4〉 제주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1)	(2)	(3)	(4)
성별				
여성	0.800** (0.076)		0.788** (0.075)	1.246** (0.109)
연령				
30대	1.189 (0.166)		1.195 (0.167)	0.817 (0.103)
40대	1.226 (0.182)		1.239 (0.184)	0.763** (0.103)
거주 지역				
서울	1.009 (0.096)		1.016 (0.098)	0.959 (0.085)
고향				
수도권	1.117 (0.130)		1.124 (0.131)	0.927 (0.101)
광역시	0.961 (0.160)		0.953 (0.159)	1.087 (0.162)
혼인상태				
결혼	1.099 (0.124)		1.103 (0.125)	0.915 (0.095)
최종학력				
대학 재학 이상	1.170 (0.165)		1.162 (0.165)	0.841 (0.115)
월 가구소득				
300~599만원	1.284* (0.167)		1.288* (0.168)	0.775** (0.096)
600~899만원	1.127 (0.175)		1.114 (0.173)	0.893 (0.126)
900~1000만원 이상	0.940 (0.190)		0.948 (0.194)	1.112 (0.208)
직업				
사무직 및 전문직	1.240** (0.124)		1.234** (0.124)	0.793** (0.075)
이사 횟수				
1회	0.978 (0.162)		0.990 (0.164)	0.948 (0.146)
2회	1.059 (0.168)		1.062 (0.169)	0.861 (0.127)

	(1)	(2)	(3)	(4)
3회 이상	1.358** (0.196)		1.356** (0.197)	0.683*** (0.091)
거주경험 및 친인척				
제주거주경험 있음	2.486*** (0.494)		2.494*** (0.498)	0.430*** (0.071)
제주 거주 친인척 있음	2.240*** (0.320)		2.233*** (0.320)	0.454*** (0.058)
만족도				
거주		1.030 (0.059)	1.058 (0.064)	0.984 (0.058)
교육		0.962 (0.056)	0.927 (0.056)	1.070 (0.060)
출산보육		1.018 (0.063)	0.996 (0.063)	0.967 (0.060)
보건의료		0.886** (0.053)	0.922 (0.056)	1.087 (0.063)
문화여가		1.056 (0.055)	1.046 (0.057)	0.966 (0.048)
교통편의시설		0.995 (0.046)	0.998 (0.048)	0.985 (0.043)
일자리경제		1.053 (0.049)	1.039 (0.051)	1.011 (0.048)
Pseudo R2	0.043	0.002	0.045	0.032
관측치 수(N)	2,012	2,012	2,012	2,012

주: 열 (1)-(3)는 이향 로지스틱 추정결과를, 열 (4)은 순서 로지스틱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열 (4)의 순서 로지스틱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수는 1-이주의향이 매우 높음, 2-이주의향이 약간 있음, 3-이주의향이 별로 없음, 4-이주의향이 전혀 없음 임. 계수 값은 Odds-ratio임.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남성, 20대, 경기도, 그 외 혼인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0~299만원, 그 외 직업, 이사 횟수 0회 임. 그 외 혼인상태에 해당하는 항목은 미혼/비혼, 이혼, 사별, 기타임. 그 외 직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직, 판매 및 영업직, 주무, 무직 및 학생, 기타임.
* p < 0.1, ** p < 0.05, *** p < 0.01.

〈표 5〉는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로지스틱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은 구체적으로 이주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표 4〉의 제주이주에 대한 의향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이주의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4〉와 마찬가지로 열 (1)-(2)은 종속변수가 더미변수로(0-이주준비 하고 있지 않음, 1-이주준비 하고 있음) 이향 로지스틱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열 (4)은 종속변수가 4점 척도로 측정된 의사수준으로(1-구체적으로 준비, 2-어느 정도 준비, 3-

별로 준비 안함, 4-전혀 준비 안함) 순서 로지스틱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열 (1)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성별, 현재 거주 지역, 월 가구소득, 직업, 이사 횟수, 그리고 거주경험 및 친인척 유무가 유의한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과, 월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응답자일수록 제주이주준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들은 <표 4>의 열 (1)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제주거주경험의 계수 값이 5.400으로 나타나 제주거주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5배 이상 더 높은 이주준비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2)에 나타난 결과의 경우 출산보육, 보건의료, 그리고 일자리경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이주준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보육과 일자리경제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이주준비의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열 (3)에서 개인적 특성과 만족도를 모두 통제할 경우, 개인적 특성에서는 직업과 이사 횟수에 대한 유의성이 사라졌고 만족도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유의성이 사라진 반면 교통편의시설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현재 거주지역의 출산보육과 일자리경제 환경이 이주준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와 관련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좋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자녀들을 양질의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등 양호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졌을 경우, 제주도로 이주를 한 후에도 이들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열 (1)에서 900~1,000만원 이상 월 가구소득은 2.083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열 (3)에서 만족도를 통제 한 후에는 계수 값이 1.939로 감소하였고 유의성 역시 10%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무직 및 전문직에 대한 결과 역시 열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열 (3)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출산보육과 일자리경제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열 (3)에서도 이주준비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경험 및 친인척 여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서 로지스틱 분석결과가 나타난 열 (4)를 살펴보면,¹⁰⁾ 개인적 특성에서는 열 (3)에서 언급한 요인들에서 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이사 횟수가 이주의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사 횟수가 많을수록 이주준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교통편의시설과 일자리경제는 여전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출산보육에 대한 유의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비례확률가정(proportional odds assumption)에 대한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결과 p-value는 0.1177로 나타났다.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 소득, 직업 등 개인적 특성과 현재 거주지의 출산보육, 교통편의시설, 일자리경제 환경에 대한 만족도 모두 제주이주의향에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이들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2배 이상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제주이주준비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1)	(2)	(3)	(4)
성별				
여성	0.748* (0.132)		0.743* (0.132)	1.374*** (0.148)
연령				
30대	1.262 (0.325)		1.194 (0.314)	0.927 (0.143)
40대	1.316 (0.358)		1.289 (0.358)	0.835 (0.136)
거주 지역				
서울	1.338* (0.234)		1.479** (0.267)	0.821* (0.088)
고향				
수도권	0.922 (0.188)		0.883 (0.181)	0.852 (0.113)
광역시	0.811 (0.242)		0.786 (0.237)	0.950 (0.177)
혼인상태				
결혼	0.919 (0.189)		0.906 (0.189)	0.869 (0.108)
최종학력				
대학 재학 이상	0.733 (0.205)		0.716 (0.206)	1.083 (0.186)
월 가구소득				
300~599만원	1.236 (0.326)		1.236 (0.328)	0.948 (0.134)
600~899만원	1.604 (0.471)		1.624 (0.480)	0.938 (0.156)
900~1000만원 이상	2.083** (0.750)		1.939* (0.718)	0.686 (0.161)

	(1)	(2)	(3)	(4)
직업				
사무직 및 전문직	1.421* (0.298)		1.381 (0.292)	0.864 (0.098)
이사 횟수				
1회	1.062 (0.405)		1.100 (0.434)	0.860 (0.164)
2회	1.391 (0.482)		1.417 (0.504)	0.725** (0.133)
3회 이상	1.707* (0.548)		1.675 (0.561)	0.603*** (0.101)
거주경험 및 친인척				
제주거주경험 있음	5.400*** (1.117)		5.644*** (1.201)	0.227*** (0.048)
제주 거주 친인척 있음	2.912*** (0.548)		2.821*** (0.545)	0.371*** (0.057)
만족도				
거주		0.996 (0.105)	1.106 (0.130)	0.935 (0.062)
교육		1.057 (0.124)	0.987 (0.121)	1.046 (0.073)
출산보육		1.333** (0.157)	1.314** (0.171)	0.902 (0.065)
보건의료		0.824* (0.095)	0.864 (0.107)	1.052 (0.074)
문화여가		0.940 (0.091)	0.939 (0.097)	1.005 (0.061)
교통편의시설		0.910 (0.075)	0.836** (0.074)	1.109* (0.061)
일자리경제		1.212** (0.103)	1.190** (0.105)	0.909* (0.048)
Pseudo R2	0.140	0.018	0.153	0.673
관측치 수(N)	1,544	1,544	1,544	1,544

주: 열 (1)-(3)는 이항 로지스틱 추정결과를, 열 (4)은 순서 로지스틱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열 (4)의 순서 로지스틱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수는 1-이주의향이 매우 높음, 2-이주의향이 약간 있음, 3-이주의향이 별로 없음, 4-이주의향이 전혀 없음 임. 계수 값은 Odds-ratio임.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남성, 20대, 경기도, 그 외 혼인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0~299만원, 그 외 직업, 이사 횟수 0회 임. 그 외 혼인상태에 해당하는 항목은 미혼/비혼, 이혼, 사별, 기타임. 그 외 직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직, 판매 및 영업직, 주부, 무직 및 학생, 기타임.

* $p < 0.1$, ** $p < 0.05$,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핵심생산 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제주도로의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정요인을 성별, 연령, 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과,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분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가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주의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주도와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고향이주 교류추진 프로젝트’와 같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¹¹⁾ 제주도의 경우 일정 기간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통해 타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근석·김봉균, 2019). 기존의 ‘제주도 한 달 살기’가 단순한 휴식·휴양의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경제 활동과 연계된 관계·교류인구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즉 단기간 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와와의 관계성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교류인구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추진방안과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이원화(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부록의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인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교통·생활편의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30대는 출산·보육 분야, 40대는 교육 분야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정책을 핵심 추진방안으로 설정함과

11) 일본의 고향이주 교류추진 프로젝트는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 활동을 통해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 미래의 이주·정주인구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홍근석·김봉균, 2019).

동시에 연령대별 맞춤형 추진방안(20대 교통, 30대 보육, 40대 교육 등)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ANOVA)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주거정책	5.91	5.81	5.83	1.352
교육정책	5.42	5.63	5.79	15.373***
출산·보육정책	5.32	5.56	5.52	5.642***
보건·의료정책	5.80	5.80	5.88	1.630
문화·여가정책	5.51	5.44	5.51	0.909
교통·생활편의정책	6.21	6.10	6.05	4.109*
일자리·경제정책	6.04	5.92	5.89	2.892

주: * $p < 0.1$, ** $p < 0.05$, *** $p < 0.01$.

향후에는 인구이주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구규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심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인구이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서지역으로 한정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구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주도의 적정인구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인구이주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 수용능력을 검토하고 앞으로 이러한 인구 수용능력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인구이주정책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기가 힘들다는 점과, 이주의향뿐 아니라 이주준비 의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지만 응답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의향을 가지고 실제로 이주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개인의 이주패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패널데이터가 구축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태호. (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제주연구원.
- 김경수·장욱. (2001). 부산시 내부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5): 39-55.
- 김정태·신동호. (2018).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만족수준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효과. 「농촌계획」, 24(4): 1-13.
- 문형주·송재민. (2019). 혁신도시 및 이전기관 특성이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97-310.
- 이성용·하창현. (2014). 제주지역의 인구이동과 지역구조변화. 「분석. 국토계획」, 49(2): 41-53.
- 이외희. (2007). 「수도권 제2기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임동일. (2011). 강원도 3대 도시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 411-421.
- 임병호·금기반·이시영. (2012). 대전시민의 세종시로 이주의향 및 이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3): 107-124.
- 임정빈·최재녕·홍근석. (2012).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통한 삶의 질과 지역이주간의 관계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3): 217-242.
- 최정신·황정임·최윤지·한송희. (2018). 농촌지역 청년층의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지역생활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 「지역산업연구」, 41.(4): 195-211.
- 최은영. (2004). 지역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5(3): 49-66.
- 송두범·임준홍·홍성효.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도시행정학보」, 28(1): 127-146.
- 하상근. (2005).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9(3): 309-332.
- 하혜수·남창우. (2002). 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69-287.
- 홍근석·김봉균. (2019).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근석·김봉균.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Banzhaf, H. S., and R. P. Walsh. (2008). Do people vote with their feet? An empirical test of Tiebout. *American Economic Review*, 98(3): 843-63.
- Borjas, G. J. (2014). *Immigration Econom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on Borstel J., Bobien, T., and Roth, D. (2019). Terror and internal migration in Israel.

- Defence and Peace Economics*, 30(4): 421-437.
- De Haas, H. (2010). Migration and Development: A Theore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227-64.
- Dreher, A., T. Krieger, and D. Meierrieks. (2011). Hit and (They Will) Run: The Impact of Terrorism on Migration. *Economics Letters*, 113 (1): 42-46.
- Dustmann, C., and A. Glitz. (2011). *Migration and education*. In E. A. Hanushek, S. Machin and L. Woessmann (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vol. 4, ch. 4). Amsterdam.: North-Holland.
- Graves, P. E., and Linnerman, P. (1979). Household Migr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3): 383-404.
- Kim B. (2019). Do air quality alerts affect household migration?. *Southern Economic Journal*, 85(3):766-795.
- Lee, B. S., and Phillips, J. M. (1997). The Earnings Experience of Rural-Urban Migrants in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1(4): 85-101.
- Lee, Y. J., and Sugiura. H. (2018). Key factors in determining internal migration to rural areas and its promoting measures? A case study of hirosaki city, aomori prefecture. *Public Policy Review*, 14(1): 153-176.
- Todaro, M. P. (1976). Internal Migration and Urban Employment: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6(3): 566-569.
- World Economic Forum. (2017). *Migration and Its Impact on Cities*.

김 봉 균: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환경관련 정책평가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Maternal stress and birth outcomes: Evidence from 1994 Northridge earthquake(2017), Do air quality alerts affect household migration?(2019), Move more, gain less: Effect of a recreational trail system on childhood BMI(2020) 등이 있다(bkim18@krila.re.kr).

홍 근 석: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지방분권·지방자치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연구(2019),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2019),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hong0582@krila.re.kr).

이 지 용: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농업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비자행동연구, 식품경제 및 정책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Cognitive ability and bidding behavior in second price auctions: an experimental study(2020), Effects of consumer cohorts and age on meat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2020) 등이 있다(jyl003@kangwon.ac.kr).